

보도 일시	2022. 9. 20.(화) 11:00	배포 일시	2022. 9. 20.(화) 10:00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총괄과	책임자	과 장 최선경 (02-2110-1510)
		담당자	사무관 강준성 (02-2110-1514)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총괄과	책임자	과 장 선중규 (044-200-4484)
		담당자	팀 장 박설민 (044-200-4485)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 소비자·이용자 분과 1차 회의 개최

9월20일(화) 오전 10시 한국프레스센터 17층 대회의실에서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 소비자·이용자 분과 1차 회의가 개최되었다. 소비자·이용자 분과는 8월19일 출범한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의 실무 분과로서, 민간이 논의를 주도하고 방통위·공정위는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에 따라, 금번 회의에는 민간 플랫폼 사업자·관련협회·소비자단체·전문가 등이 모여 플랫폼 소비자·이용자 보호를 위한 자율규제 도입 방안을 논의하였다. 아울러, 기획재정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정부 관계부처도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청취하였다.

회의는 소비자·이용자 측이 제안한 자율규제 사항들을 플랫폼 업계 및 관련협회가 함께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향후 순차적으로 세부 의제들을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회의를 주재한 고려대 권현영 교수는 “소비자·이용자 보호를 위한 플랫폼 자율규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간의 원활한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앞으로 플랫폼과 소비자·이용자 양측이 지속적 협의를 통해 자율규제 필요사항들을 적극 논의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에 덧붙여 정부 측 참석자들은 “자율기구가 민간 이해관계자 간의 소통 창구로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분과 운영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소비자·이용자 분과회의는 플랫폼 자율규제의 한 축으로서, 플랫폼 소비자·이용자의 목소리를 자율규제에 반영하는 과정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끝.